

4 학생 선거,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간 유착 관계' 의혹

'유착 의혹' 선관위원장 해임...“확대해석” 반박도

〈응용과학대학 · 중앙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박창원 기자 macpark342@knu.ac.kr
이태영 기자 ysmhip6@knu.ac.kr

지난 18일, 이지영(우주과학 2017) 전 응용과학대학(응대) 선거관리위원장(선관위원장)과 마지연(기계공학 2017) 전 중앙동아리연합회(중동연) 선관위원장이 해임됐다. 이들이 온:ON 선거본부(선본) 총학생회(총학) 후보자였던 전완주(일본어학 2015), BASIC 선본 생명과학대학(생대) 후보자였던 김예진(유전공학 2019) 씨와 술자리를 함께한 것과 아울러 공고되지 않은 선거 관련 사안을 사전 공유했다는 의혹에서다. 하지만 이지영 전 응대 선관위원장은 “확대해석한 것”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 16일 ANSWER 선본 총학 후보자인 최유리(국제학 2017) 씨가 이지영 전 응대 선관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을 증거물로 “상대 후보자와 선관위원장 간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며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같은 날 BASIC 선본 생명과학대학(생대) 김예진(유전공학 2019) 후보자 역시 “본인과 전완주 총학 후보자, 선관위원장들 간 유착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제캠퍼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는 중선관위 준비위원회 등을 통해 선거공고 이후 선관위원장과 후보(준비)자의 사적인 만남 및 공지되지 않은 선거 관련 사안에 대한 사전 공유를 금지하고, 위반 시 주의 및 경고 등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선거공고 이후, 등록 전



이지영 전 응대 선관위원장은 “의견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해임 의결을 진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선거준비기간이었던 지난 4일 저녁 이지영 전 응대 선관위원장, 마지연 전 중동연 선관위원장, 박영준 전 예술디자인대학(예디) 선관위원장은 술자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지영 전 응대 선관위원장은 전완주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리에 참석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했다. 전 씨는 “내가 참석해도 되는 자리냐”고 말한 뒤 술자리에 참석했다.

5일 새벽에는 박영준 전 예디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세 명과 김예진 씨가 김 씨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다. 김 씨는 “술자리에서 상대 총학 후보준비자를 비방하는 말이 오

갔으며, 중선관위 회의 내용이 공유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응대 선관위원장과 중동연 선관위원장은 선거유세 동영상 업로드 일정을 공유했다”며 “온:ON 선본 후보자를 띠워주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밝혔다.

18일 제2차 중선관위 긴급회의에 참석한 이지영 전 응대 선관위원장은 “네 명 모두 술자리를 가진 것은 맞다”면서도 “당시에는 선거에 나오는지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었고 ‘누가 총학생회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식의 발언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에 (전완주 후보자가) 후보준비자 자격도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전완주 총학 후보자는 긴급회의에서 “당시 출마 의지를 갖고 있었지만 선거를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면서 “청사진을 공유했으며 과거 총학생회장 활동에 대한 충고를 듣고 조언을 구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ANSWER 선본에 대한 비방 의혹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에게 부족한 부분과 준비된 부분 등에 대한 느낌을 말했다”며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지영 전 응대 선관위원장과 마지연 전 중동연 선관위원장은 해임됐다. 또한 전완주 후보자에 대해 선거시행세칙 8장 16항(그 외 본 세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과 공명을 해치는 행위) 위반으로 시정 및 주의 1회 처분이 내려졌으며, 최유리 후보자는 무분별한 녹취 방지를 위한 추가 안내사항 교육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치와 관련해 이지영 전 응대 선관위원장은 지난 20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중선관위의 해임 조치가 끼워맞추기식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입장문에서 “현재 총학생회 선거구 입후보자에게 본인이 있는 술자리에 합석할 것을 권유한 점으로 유착 관계를 추측한 것은 옳지 않다”며 “만남과 유착을 같은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긴급회의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당시 전완주 후보자는 후보(준비자) 신분이 아닌 일반 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선거시행세칙의 어떤 조항에도 중선관위가 ‘일반 학생과 만남을 갖는 것’을 공명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영 전 응대 선관위원장은 “의견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해임 의결을 진행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의제기서의 근거 제출과정과 처리 및 해임 공고 진행에 위법성이 존재했다”며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내용에 대해 법적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학 저작권 교육 특강

| 대학 저작권 교육 특강 – 교수자 대상 |

- 가. 강의주제 : 교수자를 위한 비대면 강의 저작권 교육
- 나. 강의내용 : 1. 강의콘텐츠 제작 시 교수자가 지켜야 할 저작권 및 사례
2. 실시간 교육 제공 시 교수자가 지켜야 할 저작권 및 사례
- 다. 강의일시 : 2020. 11. 30(월), 12:30 ~ 14:30 (2시간)
- 라. 장 소 : 본교 e-campus zoom 회의실 (회의 ID : 853 571 2439)
- 마. 교육대상 : 교수자
- 바. 강사 명 : 손수호 교수(인덕대학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 사. 신청링크 : <https://forms.gle/sLzXK5DLTz1s2WP9>
- 아. 참고사항 : 1. 신청 링크를 통해 저작권 관련 질문을 함께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내용은 담당 강사에게 전달되며, 교육 중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전 질문 수집은 11월 26일 23:59 이전 응답건에 대하여 유효합니다.
(11월 27일 00:00부터는 신청만 가능합니다.)

| 대학 저작권 교육 특강 – 학습자 대상 |

- 가. 강의주제 : 학습자를 위한 비대면 강의 저작권 교육
- 나. 강의내용 : 1. 비대면 학습과정에서 지켜야 할 저작권
2. 보고서 작성, 매체 제작 시 지켜야 할 저작권 사례
- 다. 강의일시 : 2020. 12. 01(화), 12:30 ~ 14:30 (2시간)
- 라. 장 소 : 본교 e-campus zoom 회의실 (회의 ID : 508 061 6955)
- 마. 교육대상 : 학습자
- 바. 강사 명 : 손수호 교수(인덕대학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
- 사. 신청링크 : <https://forms.gle/fhtGbfbPoBGWD9Fw7>
- 아. 참고사항 : 1. 신청 링크를 통해 저작권 관련 질문을 함께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내용은 담당 강사에게 전달되며, 교육 중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전 질문 수집은 11월 26일 23:59 이전 응답건에 대하여 유효합니다.
(11월 27일 00:00부터는 신청만 가능합니다.)